

순조와 순원왕후의 신혼시절 대조전의 벽을 장식한 그림들

인문정보학과 석사과정 구현희

목차

-
1.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
 2. 이이순(李頤淳)의 대조전수리시기사
 3. 대조전의 꾸밈새
-



정조(正祖)
1752 - 1800



효의왕후
孝懿王后
1753 - 1821



의빈 성씨
宜嬪 成氏
1753 - 1786



수빈 박씨
綏嬪 朴氏
1770 - 1822



원빈 홍씨
元嬪 洪氏
1766 - 1779



화빈 윤씨
和嬪 尹氏
1765 - 1824



문효세자
文孝世子
1782 - 1786



순조(純祖)
1790 - 1834



숙선옹주
淑善翁主
1793 - 1836

순조(純祖)
조선 제23대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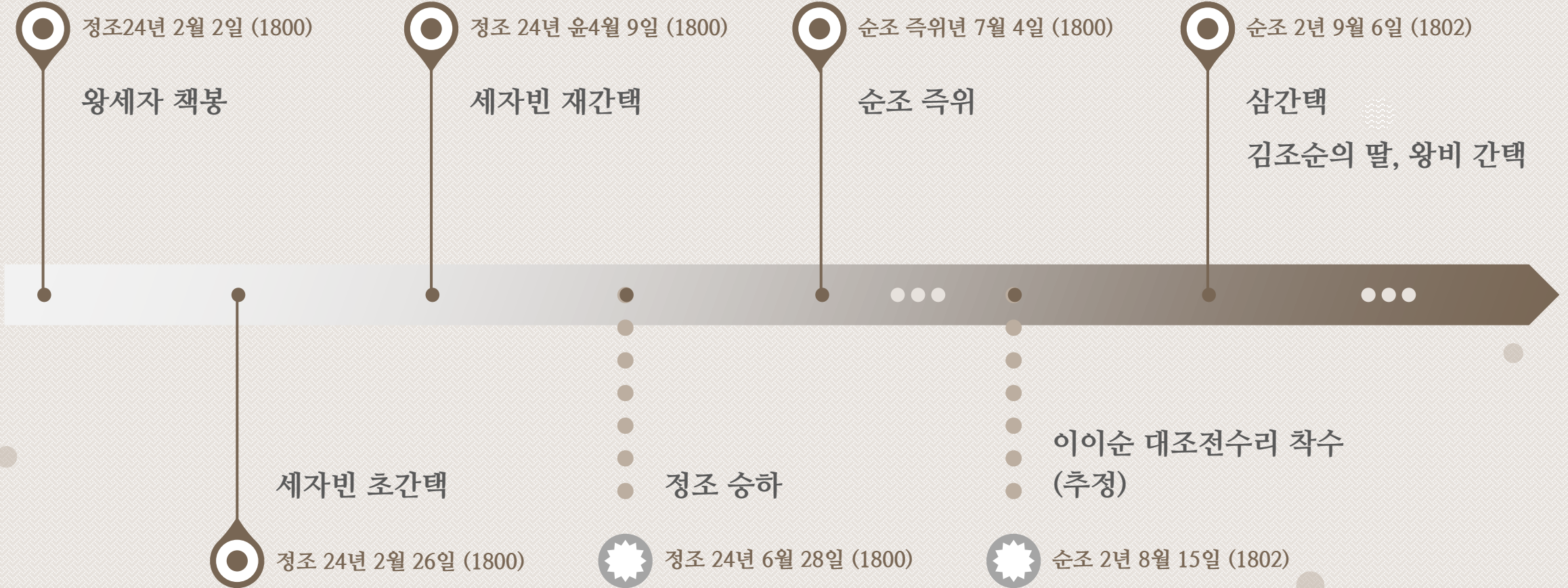
생몰 : 1790년 7월 29일(음력 6월 18일)
~ 1834년 12월 13일(음력 11월 13일)

재위 : 1800년 8월 23일(음력 7월 4일)
~ 1834년 12월 13일(음력 11월 13일)

탄생 위치 : 창경궁 집복헌

세자 책봉 : 1800년 2월 25일(음력 2월 2일)

즉위 나이: 11세



○乙酉/王世子行冠禮冊禮于集福外軒。

왕세자 관례와 책봉례를 집복헌(集福軒)
바깥채에서 거행하였다.

○乙酉王世子行冠禮冊禮于集福外軒

賓賓及頒教陳賀軒架勿為排設○兵曹啓言王世子冊禮有寢禮傳冊之命而事體至重且大侍衛與禁軍請以全數磨鍊鹵簿甲士亦依例備陳命寢之○乙酉王世子行冠禮冊禮于集福外軒命賓賓時至賓以下宗親文武百官皆就仁政門外位捧教命官捧教書函置於案執事官先就位承旨分入仁政殿內東西俯伏史官在其後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入就位贊唱四拜宗親文武百官四拜傳教官進當座前跪啓傳教俯伏與由東門出執事者二人對舉教書案隨之傳教官降詣賓東北西向立執事者舉案立於傳教官之南少退西向傳教官稱有教賓以下跪傳教官宣教曰今加冠於元子卿等將事宣訖賓以下四拜執事者以教書案進傳教官前傳教官就教書函授賓賓進北向跪受舉案者二人對舉進賓之左跪賓置教書函於案舉案者對舉退立於賓之後傳教官還侍位賓賓俯伏與四拜賓賓由東門出舉案者前行賓以教書函置於彩輿賓以下隨行宗親文武百官俱復拜位四拜出詣集福外軒行禮如儀冠禮時至世子時服以出時服學引陞座官官及執事入庭再拜各就位引儀分引都監提調時原任閣臣宗親文武二品以上入弼善跪贊請興世子興立於座前都監提調時原任閣臣宗親文武二品以上由西階陞就

《문효세자책례계병(文孝世子冊禮契屏)》





Semantic Data



순조순원왕후가례(1802)

isHeldFor



순조(純祖 1790~1834)



documents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isHeldFor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

hasWife

○行世子嬪初揀擇于集福軒，敎曰："行護軍金祖淳女，進士徐淇修女，幼學朴鍾萬女，幼學申緝女，通德郎尹守晚女，入再揀擇，餘皆許婚。"

세자빈(世子嬪)의 첫 번째 간택을 집복헌(集福軒)에서 행하고 하교하기를,
"행 호군(行護軍) 김조순(金祖淳)의 딸, 진사 서기수(徐淇修)의 딸, 유학(幼學) 박종만(朴鍾萬)의 딸, 유학 신집(申緝)의 딸, 통덕랑(通德郎) 윤수만(尹守晚)의 딸만 두 번째 간택에 들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혼(許婚)하도록 하라."
하였다.

王世子行謁廟禮○行世子嬪初揀擇于集福軒敎曰行護軍金祖淳女進士徐淇修女幼學朴鍾萬女幼學申緝女通德郎尹守晚女入再揀擇餘皆許婚

典文書所關尤何如也古則徒流安置充軍等罪名過赦則放秩未放秩之區別即近規而後來之更添稟秩名目又是近規之近規雖曰近規既屬定式此亦法也諸道放未放啓本皆上來獨湖南尚無登聞追聞之非特教非定奪而一承宣忽以己見自外還送未放秩中于連深重之類使之刪拔修啓而然云可謂妄矣罪名以其深重也故置之未放秩今若刪拔則此類將為上不知中不知之罪名寧有是乎雖似生疎所致么麼一承宣為此自有該府該道該承旨李義甲施以未放秩中首律令該府今日內公罪收贖草記飭銓曹勿復厠之銀臺之望俾近日汨汨於俗習不知高厚作為工謀之方者知所為戒○命黑山島定配罪人度謙移配金甲島○戊申○己酉展拜 宗廟 景慕宮王世子行謁廟禮○行世子嬪初揀擇于集福軒敎曰行護軍金祖淳女進士徐淇修女幼學朴鍾萬女幼學申緝女通德郎尹守晚女入再揀擇餘皆許婚○命觀象監提調李晚秀禮曹參判李魯春率國卜金海淡入侍 上曰今日四次拜禮諸室奉審子亦難之而東宮冲年行禮不以為勞矣晚秀曰趨階升降之際拜跪進退之節悉中規度儼若天成實不勝萬萬慶幸矣 上問國卜

俗套之一機會也伏乞特寢李晚秀統禦使除授之命以明矯俗之本意焉批
曰除銓與補闡其意一也各適其當是謂矯俗承宣之奏不之允可者自有斟
量於使以禮成其美之道卿須諒之○以李義弼為工曹判書閔台赫為吏曹
叅判○甲子○乙丑 上自是月旬前有癖候連進傳貼之劑久未奏效召見
內醫院提調徐龍輔于便殿龍輔問候 上曰夜來寢睡全未穩着而日前傳
藥處今既膿潰矣命招入醫官白成一鄭允僑等診察傳藥處教曰與昨日何

正宗大王二十四年清嘉慶五年夏六月己卯 正宗薨越六日秋七月甲申初四

王即位于昌德宮之仁政門 王以 正宗十四年庚戌夏六月丁卯十八日誕

降于昌慶宮之集福軒初 正宗在位久未有儲嗣中外憂之己酉宮人夢飛

龍之祥而 綏嬪朴氏有娠及誕彩虹亘于 廟井神光繞於宮林 正宗就

而視之曰是兒福祿非吾所及也 孝懿后金氏取而子之定號 元子 王

自在孩提聰明絕異至孝出天事 父王克敬克謹不敢有所違拂事 殿宮

無間然而於 孝懿后敬愛尤著是年春冊封 王世子行冠禮寶齡即十一

歲也及 正宗薨逝大臣以遺教令都承旨奉傳大寶 王不受之號哭不已

大臣禮官三司又屢請嗣位不聽大臣遂率百官庭請伏閣始為允從是日成

服後時卯 上具冕服詣 殯殿受大寶出御仁政門即位頒教受宗親文武百

官賀如禮尊 王大妃為大王大妃 王妃為王大妃奉 大王大妃行垂簾

聽政禮于熙政堂大臣諸臣以 上方在冲年依宋朝宣仁太后國朝 貞熹

○甲戌/行三揀擇。大王大妃以承傳色，傳于賓廳曰：“大婚欲定於上護軍金祖淳家，卿等之諸議，如何？”領府事李秉模、領議政沈煥之、左議政李時秀、右議政徐龍輔啓言：“伏承慈教，允協神人之望。斯乃宗社臣民無疆之福，臣等不勝忭賀之至。”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였다. 대왕 대비가 승전색(承傳色)을 시켜 빈청(賓廳)에 전달하기를,
"대혼(大婚)을 상호군(上護軍) 김조순(金祖淳)의 집으로 결정하려 하는데 경 등의 여러 의논은 어떠한가?"
하니, 영부사 이병모(李秉模),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삼가 자교(慈教)를 받으니 진실로 신인(神人)의 희망에 부합됩니다. 이는 바로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무강한 복이니 신 등은 진심으로 경하(慶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하였다.

[반차도 본문 \(museum.go.kr\)](http://museum.go.kr)

膳錄則嘉禮後翌日 中宮殿朝見于 王大妃殿又翌日朝見于 王大妃殿矣請今亦依此磨鍊從之○命嘉禮後 王妃受陳賀時命婦朝賀置之各 殿宮方物物膳依例封進○連山縣按覈御史李晦祥查啓下該曹問議于時原任大臣後行兇正犯與官屬之悞不捍衛者四人並施一律其次刑配有差○九月己巳朔 大王大妃教曰今年屢次賀禮各道民弊不可不念冬至方物物膳並除減○庚午 大王大妃特教遞御營大將申大謙以金祖淳代之○戶曹判書趙鎮寬陳疏言都相之阻禮數都廳之有私嫌為難安賜批遞之以李書九為戶曹判書仍差嘉禮都監提調趙鎮寬為工曹判書李敬一為漢城府判尹○辛未右議政徐龍輔因前戶曹判書趙鎮寬疏辭陳劄自引教曰今見右相劄重臣處義誠不可曉也然則日前疏批予亦不審矣前戶曹判書趙鎮寬施以不叙之典以示敬大臣之意○壬申○癸酉次對○命北關陵寢奉審待明年更稟以年限已過而大禮當前也○甲戌行三揀擇 大王大妃以承傳色傳于賓廳曰大婚欲定於上護軍金祖淳家卿等之諸議如何領府事李秉模領議政沈煥之左議政李時秀右議政徐龍輔言伏承慈教允協神人之望斯乃宗社臣民無疆之福臣等不勝忭賀之至○禮曹啓



揀擇以後親迎以前分排推擇則納采九月十八日納徵同月二十日告期十月初三日冊妃同月十三日為吉而習儀等節次亦當於其間量宜為之云矣
大王大妃教曰依所擇日子為之可也 大王大妃教曰大造殿即 大殿寢殿三揀擇前不可不修葺矣煥之曰戶判舉行之事而戶判不為登筵矣 大王大妃教曰承旨傳于戶判可也又教曰都監舉行不得不為之事外務從除弊仰體昔日聖意可也晚秀曰嘉禮時儀節 先朝時以一依 顯廟朝辛卯年嘉禮例已有成命而到今事體與其時有異第念 肅廟朝辛亥年嘉禮時兩東朝臨御事若相符以其時儀軌用之似好而亦有下教然後可以舉行且本曹與春秋館無其時儀軌之見存者獨江華鼎足山城有之遣史官持來以為憑考之地恐好矣 大王大妃教曰卿言甚好依此為之○大王大妃命三

大造殿修理時記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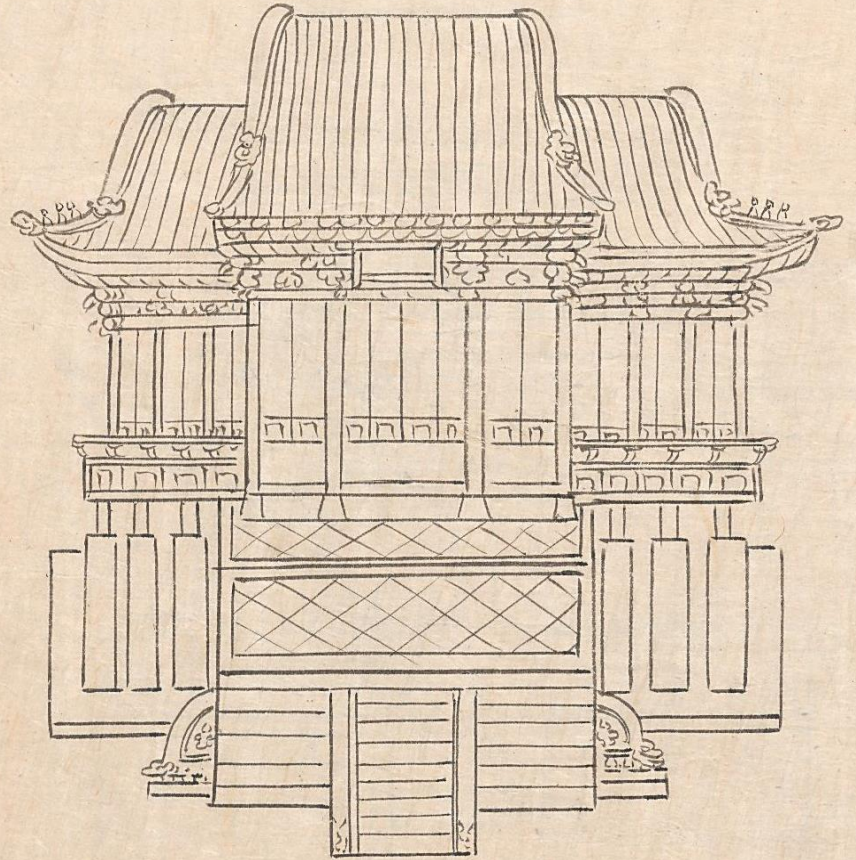
壬戌之秋七月二十九日自 孝陵參奉遷繕工監奉事八月十四日差秋夕祭官赴 崇陵夜二更見本監書員告曰則今日劃出紫門監代察行祀後直造 闕下云待行事畢冒雨馳詣 闕外紫門監書員來告 闕內大造殿修理以今日申時始役事 稟定當待于幕次及時到進詣役所云蓋大造殿即 中宮殿臨御之所也 嘉禮日近故將修理而紫門監例掌闕內修理之役與戶曹別例房同事時紫門

殿在仁政殿東。熙政堂北。最深處。中六間為正堂。左六間為東上房。右六間為西上房。東上房六房。西上房八房。前後皆有退。總之為三十六

後溪集卷之五

六

間。前後左右四方。皆設窗戶及裝子。而無土壁矣。堂板之隙。塗以紙。鋪以舊地衣。乃以綵花新地衣加之。堂之北壁當中。設金箋屏兩片。著以廣頭釘。其前設瑤池宴屏十帖。置龍牀。牀上鋪龍文席。問之則安東席匠之所貢云。龍文席上。立交椅。椅前置踏牀。左右列筆硯几案。香火鑪。牀下東偏。立短檠。而畫竿玉臺。其上掛諸窗戶。鑰匙堂之西偏。立月刀手。旂於畫機上。西南偏。立筭衡。其制如鍾鐻樣。塗紙兩邊。畫以山水以障之。疑古所稱樹塞門也。東南隅。設紅色方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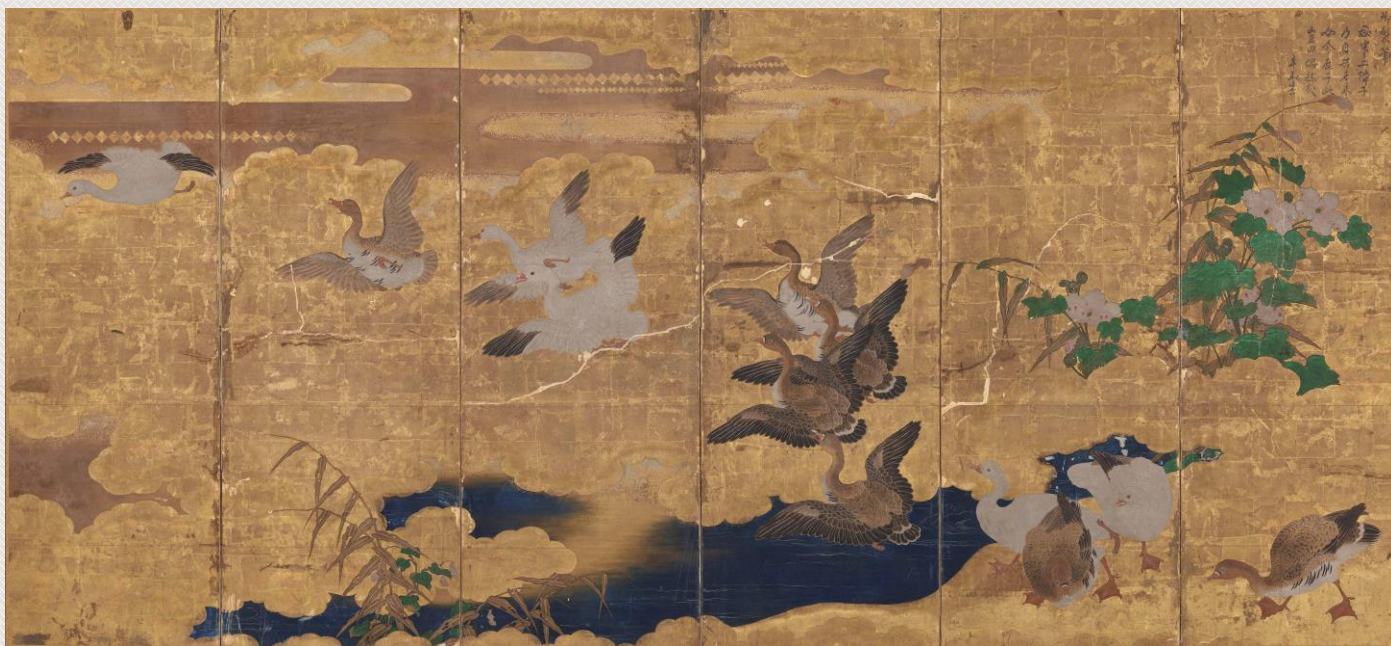




부용안도병풍(芙蓉雁圖屏風)

가노유히 야스노부(狩野友甫宴信, ?~1762)

1748년 통신사 파견 때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서
조선 국왕에게 선물한 6폭 병풍 1쌍



요지연도 10폭 병풍(瑤池宴圖十幅屏風)

중국의 곤륜산(崑崙山) 요지(瑤池)에서 서왕모(西王母)와 지상의 인간(전한(前漢)의 무제(武帝) 또는 주(周) 목왕(穆王))이 만나 연회를 즐겼다는 전설의 내용을 그린 그림



대조전의
꾸밈새

모란도 병풍
(牧丹圖 屏風)



창덕궁 대조전 봉황도 (昌德宮大造殿 鳳凰圖) 오일영(당시 31세), 이용우(당시 17세)

1920년 창덕궁 대조전의 동쪽 벽에 종이로 그려 붙였던 부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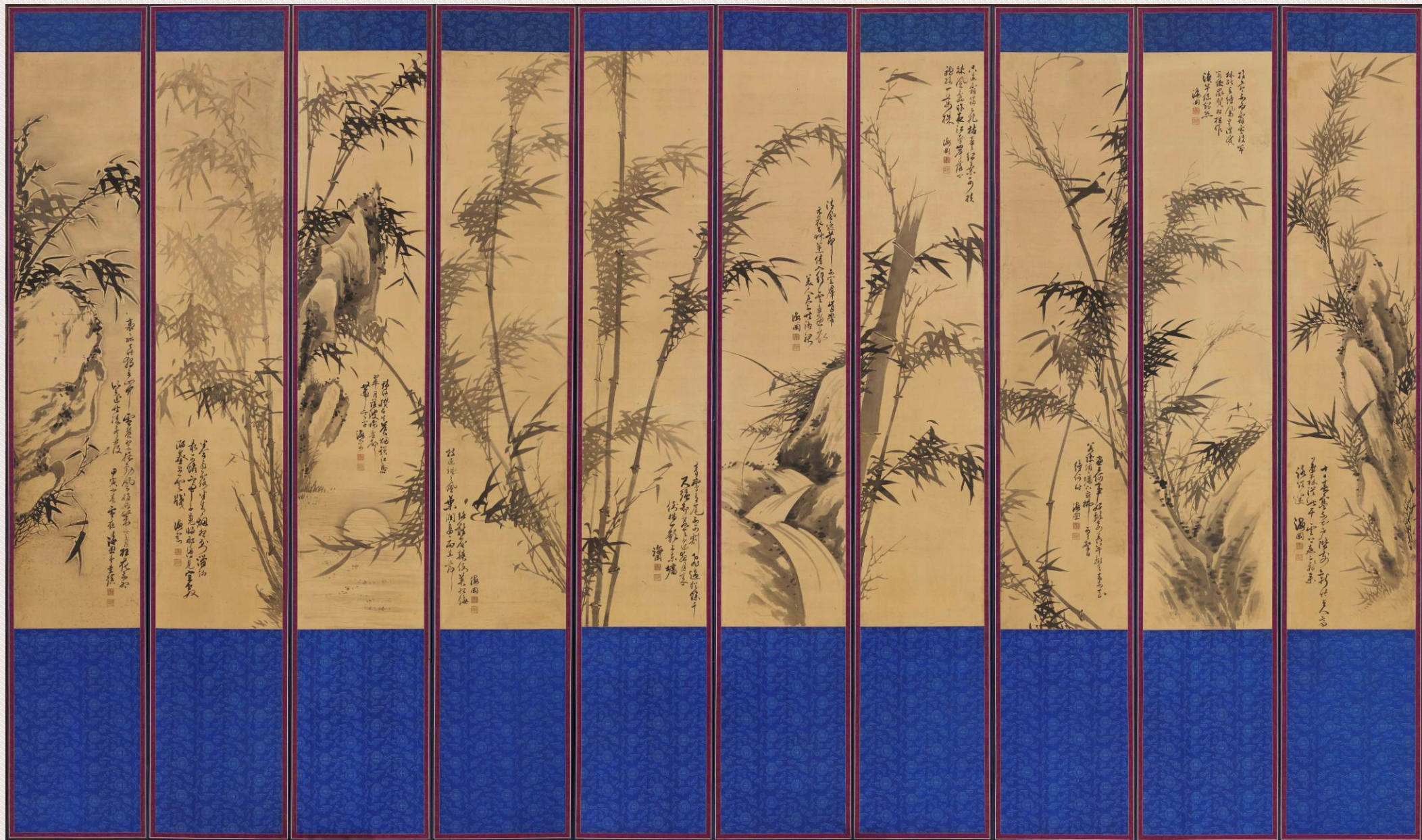


매화도 병풍(梅花圖屏風)



죽석도병풍
(竹石圖屏風)
김규진
(金圭鎭,
1868-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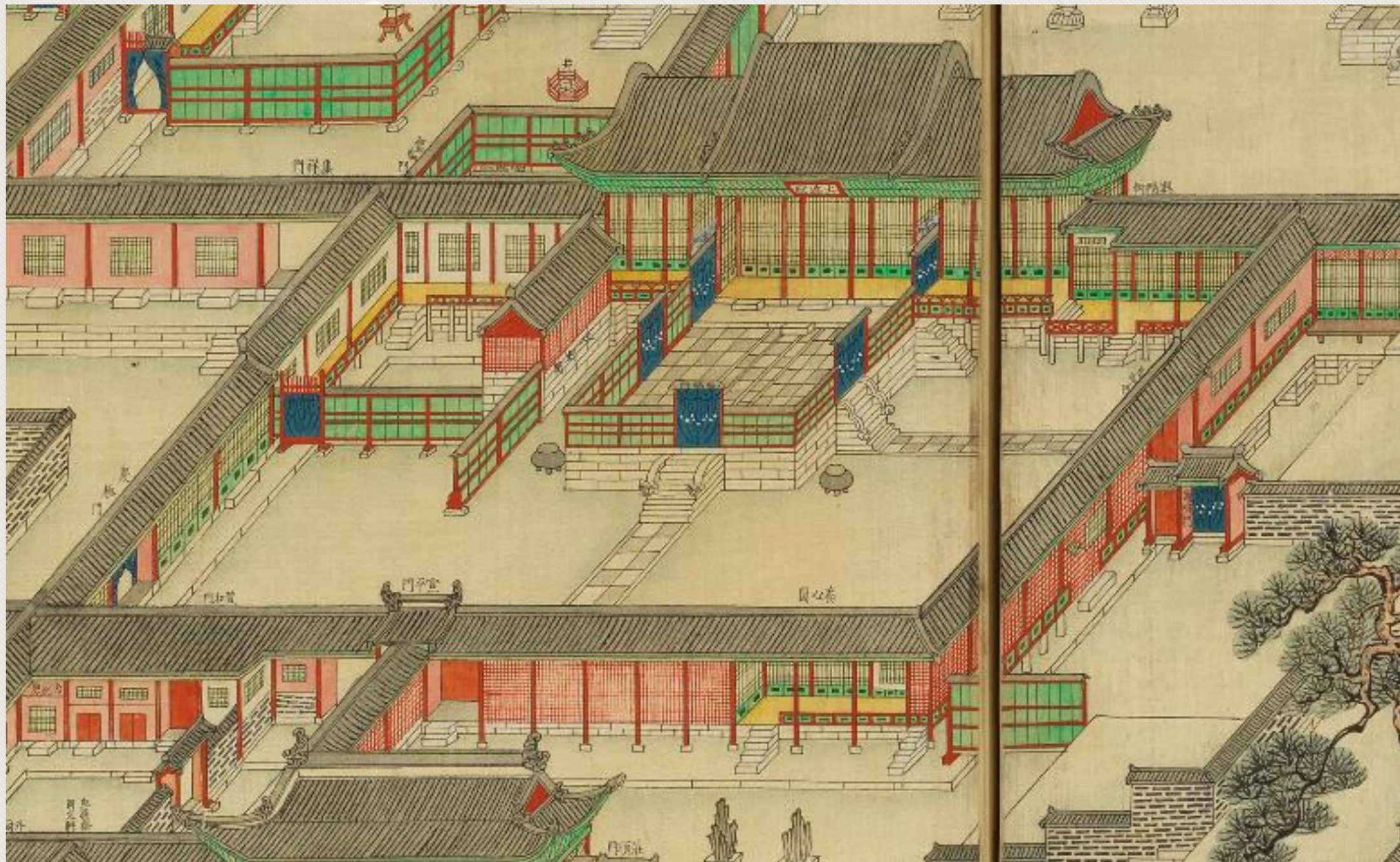
1914년 제작



매죽도가리개(梅竹圖二幅屏)
양기훈(楊基薰, 1843~1919 이후)



대조전의
꾸밈새



국립춘천박물관, 안녕모란 전시



감사합니다.
